

미·중 ‘100일 계획’ 합의와 미국 주요품목의 對中 교역

천용찬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 중국경제팀 선임연구원

주요내용

- (현황) 지난 5월 11일 미국과 중국은 4월에 가진 미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100일 계획”에 관한 내용을 발표함. 합의내용은 주로 미국 측이 對中 무역수지 적자를 나타내고 있는 농산물, 에너지제품, 금융서비스에 관한 것이 대부분임.
- (원인과 분석)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는 절반 가까이 중국으로부터 발생하고 있으며, 전체 적자 가운데 중국의 비중이 증가 추세임. 따라서 미국이 이번 ‘100일 계획’ 합의 이후에도 중국측에 관련 품목들의 대미 수입을 늘리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커짐.
- (전망과 시사점) 향후 미국이 중국을 넘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품목별로 수출확대 방안을 노릴 가능성이 있는 만큼, 우리의 사전 대비책과 대응카드 마련이 필요함.

1. 이슈 현황

■ 지난 5월 11일 미국과 중국은 4월에 가진 미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100일 계획”에 관한 내용을 발표함.

- 합의내용은 주로 미국 측이 對中 무역수지 적자를 나타내고 있는 농산물, 에너지제품, 금융서비스에 관한 것이 대부분임.
- 예상대로 2017년 4월의 미국재무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대중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하려는 미국의 실질적인 노력은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큼.
- 이번 ‘100일 계획’ 합의내용은 주로 미국산 소고기, 바이오제품, LNG 등에 대한 중국의 대미수입 재개를 중심으로, 신용평가, 파생상품, 전자결제, 은행감독 등 금융서비스에 관한 내용들도 포함됨.

표 1. 미중 100일 계획 합의 내용

| 구 분 | 주 요 내 용 |
|-----------------------------------|---|
| 1. 미국산 소고기 | -2017년 7월 16일 전까지 중국은 국제식품안전기준에 부합하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재개 |
| 2. 중국산 조리 가금류 (cooked poultry) | -2017년 7월 16일 전까지 미국은 중국산 조리 가금류 수입규제를 해소하여 대중 수입을 재개 |
| 3. 미국산 바이오제품 | -중국 국가바이오안전성위원회(National Biosafety Committee, NBC)는 2017년 5월 말까지 8개의 미국산 바이오제품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마무리하고, 인증서 발급을 위한 관련 회의를 투명하고도 신속하게 진행 |
| 4. 미국산 LNG | -미국은 중국에 LNG를 수출할 때, 중국을 기타 비FTA 체결국과 동등한 대우를 해줄 것을 약속 ※ 2017년 4월 25일 현재, 미국은 비FTA 국가들에 하루 192억 입방피트의 LNG를 수출하고 있음. |
| 5. 신용평가 서비스 | -2017년 7월 16일까지 중국은 외국인 소유 금융서비스 회사가 신용평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용조사를 위한 관련 절차를 시작하도록 허용 |
| 6. 파생상품 거래 | -2017년 7월 16일까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상해청산소에 대한 적용유예 기간을 6개월 연장할 것을 결정하며, 필요시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
| 7. 전자결제 서비스 | -2017년 7월 16일까지 중국은 미국 전자결제서비스(EPS)가 중국내 사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시해야 함 ※ 미국이 외화지불카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중국 측 은행들이 이중통화 은행카드 발행을 허용 |
| 8. 은행 규제감독 | -미국 연방규제당국은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기타국가 금융기관에 적용하는 은행 건전성 감독 및 규제표준을 중국 금융기관에도 동일하게 적용 |
| 9. 채권 발행 | -2017년 7월 16일 전까지 중국은 미국의 2개 금융기관에 중국내 채권발행 및 인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가 |
| 10. 일대일로 포럼 참석 | -미국은 중국의 일대일로 포럼에 대표단 파견 결정 |

자료원 : 'Initial Actions of the U.S.-China Economic Cooperation 100-Day Plan'을 바탕으로 著者 정리.

2. 원인과 분석 : 미국 주요품목의 對中 교역 현황

■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는 절반 가까이 중국으로부터 발생하고 있으며, 전체 적자 가운데 중국의 비중이 증가 추세임.

□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는 절반 가까이 중국으로부터 발생하며, 전체 무역수지 적자 중에서 중국의 비중이 점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00년 미국의 대외무역수지 적자는 4,365억 달러에 달했는데, 그 중에서 중국으로부터 발생하는 무역수지 적자는 전체의 20.2%인 838억 달러를 차지함.
-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미국의 對중국 무역수지 적자는 더욱 빠르게 확대되는 양상을 나타냄.
- 2009년부터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중 중국의 비중이 처음으로 40%를 넘어서면서, 2016년에는 47.2%에 달함.

- 2016년 기준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국은 중국(47.2%), 일본(9.4%), 독일(8.8%), 멕시코(8.6%), 아일랜드(4.9%) 등 순으로 나타남.
- 한국은 3.8%로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국가 중 8위에 랭킹

그림 1.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규모 현황(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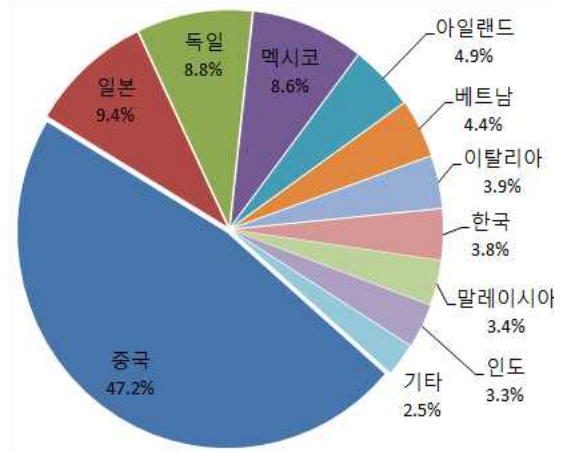
(단위: 비중, %)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자료로 작성 재구성.

그림 2. 미국의 주요 무역수지 적자국가 비중

(단위: 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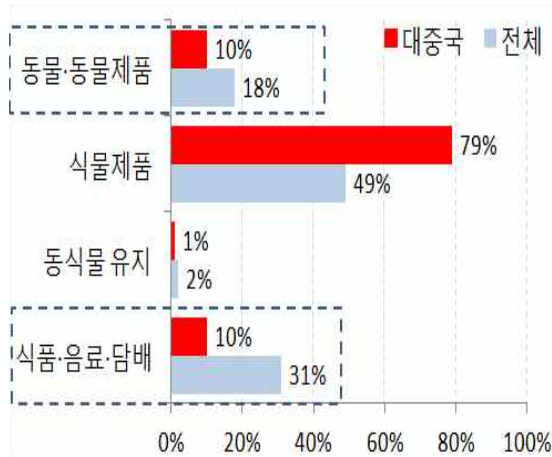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자료로 작성 재구성.

■ (1. 농식품) 미국 농산물·식품 중에서 육류 및 육류제품의 對中 수출이 다소 부진한 상황이어서, 미국 측이 중국에 대해 미국산 육류 수입을 확대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음.

- 2016년 기준으로, 미국의 농산물·식품의 동물·동물제품, 식품·음료·담배의 대중국 수출비중이 대세계 수출비중을 하회
 - 미국 농산물·식품의 대세계 수출 중에서 동물·동물제품, 식품·음료·담배의 비중은 각각 18%, 31%를 차지함.
 - 그러나 동물·동물제품, 식품·음료·담배의 대중국 수출비중은 대세계 수출비중보다 낮은 10%, 10%로 나타나면서 미국이 중국에 미국산 제품 수입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커짐.
- 특히, 동물·동물제품 중에서도 육류 및 육류가공품의 대중국 수출비중이 부진한 상황
 - 2016년 기준, 미국의 동물·동물제품의 對중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6%로 가장 크게 나타남.
 - 그러나 육류 및 육류가공품의 경우, 미국의 동물·동물제품 대세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8%인 반면, 대중국 수출은 28%에 그침.
 - 이에 따라, 미국은 이번 100일 계획 합의 이후에도 중국 측에 지속적으로 미국산 육류 및 가공품을 수입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짐.

그림 3. 미국 농산물·식품의 수출구조(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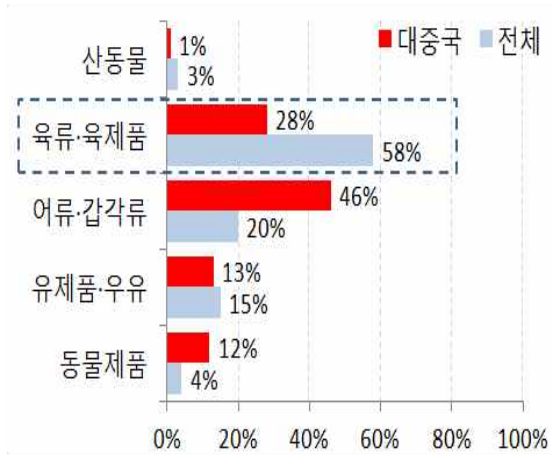
(단위: 비중,%)



자료원: CEIC 자료로 풀徹 재구성.

그림 4. 미국 동물·동물제품의 수출구조(2016년)

(단위: 비중,%)



자료원: CEIC 자료로 풀徹 재구성.

■ (2. 차량·항공기·선박) 미국 차량·항공기·선박 중에서 차량 및 부품의 對中 수출이 다소 부진한 상황이며, 미국 측이 중국에 대해 미국산 자동차 수입을 확대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음.

□ 2016년 기준, 미국의 차량 및 부품의 대중국 수출비중이 다소 부진하게 나타남.

- 차량 및 부품의 경우, 미국의 차량·항공기·선박 대세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7%인 반면, 대중국 수출은 4%p 낮은 43%임.
- 이에 따라, 향후 미국이 자국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대중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들을 강구할 가능성이 있음.

■ (3. 원유·LNG) 중국이 원유 및 LNG 품목에서 중동국가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게 나타나면서 미국에 대한 수입의존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

□ 중국이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는 러시아로 나타났으며, 미국으로부터의 수입규모는 러시아의 1% 수준에 그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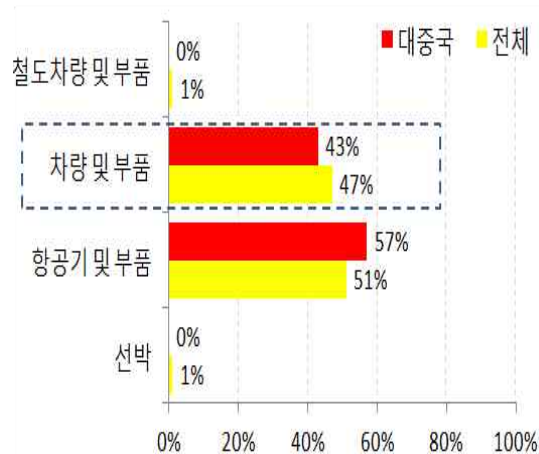
- 2016년 기준, 중국이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 원유는 5,250만 톤으로 나타났으며 미국은 러시아의 1%에 수준인 50만 톤 정도임.

□ 중국의 LNG 수입은 주로 호주, 중동 국가에 의존하고 있으며, 미국에 대한 수입의존도는 말레이시아보다 낮고 인도네시아와 비슷한 수준임.

- 2016년 기준, 중국의 대미국 LNG 수입비중은 호주와 카타르의 절반수준임.
- 이번 100일 합의에서 미국측이 요구한 것과 같이, 향후 미국은 중국에 대해 미국산 LNG 수입을 확대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있음.

그림 5. 미국 차량·항공기·선박의 수출구조(2016년)

(단위: 비중, %)



자료원: CEIC 자료로 활용 재구성.

표 2. 중국의 국가별 원유·LNG제품 수입 현황(2016년)

| 원 유 (백만 톤) | | LNG (비중) | |
|---------------|------|-------------|-----|
| 러시아 | 52.5 | 호주 | 18% |
| 사우디아라비아 | 51.0 | 카타르 | 18% |
| 앙골라 | 43.7 | 아랍에미리트 | 16% |
| 이라크 | 36.2 | 말레이시아 | 11% |
| 오만 | 35.1 | 미국 | 9% |
| 이란 | 31.3 | 인도네시아 | 9% |
| 미국 | 0.5 | 기타 | 19% |

자료원: CEIC 자료로 활용 재구성.

■ (4. 서비스) 미국 서비스 부문의 수출에서 금융서비스 및 사업서비스의 對中 수출이 다소 부진한 상황이며, 미국 측이 중국에 대해 금융시장 제도개혁과 더불어 시장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2016년 기준으로, 미국의 서비스 부문의 금융서비스, 사업서비스의 대중국 수출비중이 대세계 수출비중을 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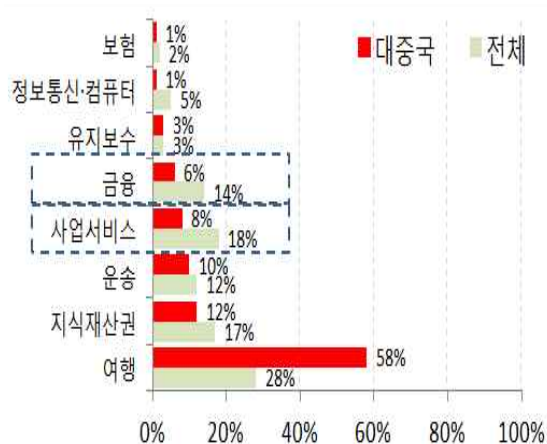
- 미국 농산물·식품의 대세계 수출 중에서 금융서비스, 사업서비스의 비중은 각각 14%, 18%를 차지함.
- 그러나 금융서비스, 사업서비스의 대중국 수출비중은 대세계 수출비중보다 낮은 6%, 8%로 나타나면서 미국이 중국측에 관련 서비스 시장 개방을 촉구할 가능성이 커짐.

□ 특히, 사업서비스 중에서도 연구개발 서비스, 전문·컨설팅 서비스의 대중국 수출비중이 부진한 상황

- 연구개발 서비스의 경우, 미국의 사업서비스 대세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인 반면, 대중국 수출은 5%에 그침.
- 전문·컨설팅 서비스도 대세계 수출비중은 48%인 반면, 대중국 수출비중은 27%에 그침.

그림 6. 미국 서비스부문의 수출구조(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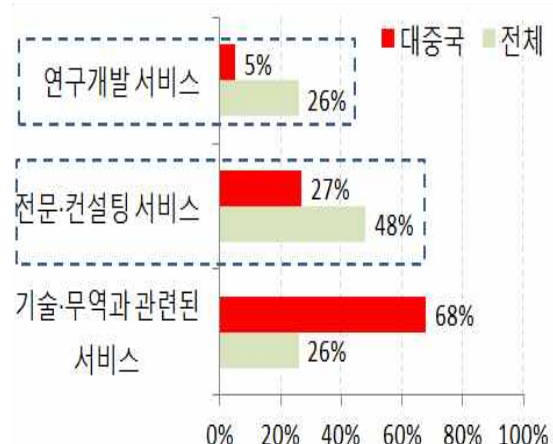
(단위: 비중,%)



자료원: CEIC 자료로 활용 재구성.

그림 7. 미국 사업서비스의 수출구조(2016년)

(단위: 비중,%)



자료원: CEIC 자료로 활용 재구성.

3. 전망과 시사점

■ 향후 미국이 중국을 넘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품목별로 수출확대 방안을 노릴 가능성이 있는 만큼, 우리의 사전 대비책과 대응카드 마련이 필요함.

- 첫째, 미국 측의 요구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고, 나아가 동일한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중국기업들과도 연대하여 대응책을 협의하고 마련해야 함.
- 둘째, 국가간 산업구조와 수출입구조가 상이하여 특정품목에서 나타나는 무역불균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미국 측에 충분히 설명해야 함.
- 셋째, 한미 FTA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홍보를 적극 진행하는 등 한미 FTA의 호혜적 성과에 대해 미국 측에 선제적인 설득을 해야 함. **CSF**

알립니다

- CSF 이슈분석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 발간하고 있으며, 저작권 정책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제 3유형'에 따릅니다. 해당 원고에 대해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무단 전재·변경·제 3자 배포 등을 금합니다. 또한 본 원고를 인용하시거나 활용하실 경우 출처 표기 원본 변경 불가 등의 이용 규칙을 지켜셔야 합니다.
- 본 원고에 대한 글, 그림, 사진 등 저작권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모든 자료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저자 본인에게 있으며, 해당 원고의 의견은 KIEP 및 CS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